# 프로농구 'FA삼총사' 밥값 하네?

## 인삼공사 오세근, 평균 19.3점 국내선수 1위 · 이정현, KCC 선두 일조 · 김동욱, 공수에서 삼성 농구의 중심

안양 KGC인삼공사 오세근 · 전주 KCC이지스 이정현 · 서울 삼성썬더스 김동욱 (왼쪽부터)

프로스포츠에서 자유계약(FA)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가장 빠르게 전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신인선수 드래프트와 트레이드 외에 이렇다 할 영입 방법이 없는 프로농구에선 더 그렇다.

지난 비시즌에 FA 최대어로 꼽혔던 오세근(30 · 인삼공사), 이정현(30 · KCC), 김동욱(36 · 삼성)이 2017~2018시즌 연봉에 걸 맞는 활약으로 'FA 모범생' 행보를 걷고 있다.

오세근과 이정현은 국가대표 주축으로 지난 시즌 안양 KGC인삼공사가 정상에 오르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인삼공사의 고민은 그때부터 커졌다.

둘이 나란히 FA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상징 같은 두 선수를 모두 잡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FA 시장에서 둘의 가치는 폭등했고 샐러리캡, 즉 연봉총액상한제로 인해 다 잡을 수 없었다.

결국 안정적인 골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인삼공사는 오세근을 선택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올스타전,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상을 싹쓸이한 그는 연봉 6억원, 인센티브 1억5000만원에 인삼공사와 계약했다. 보수총액 7억5000만원이다.

오세근은 이번 시즌 15경기에 출전해 평균 19.3점 10.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 맹활약 중이다.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국내선수 1위다.

국가대표 차출 이후 주춤하는 경향이 있지만 데이비드 사이먼과 버티는 골밑은 10개 구단 중 최고에 가깝다.

물오른 기량에 성숙함까지 더해 데뷔 후 가장 위력적이라는 평가다.

1라운드에서 트리플더블(득점 · 리바운드 · 어시스트 · 스틸 · 블록슛 중 세 부문에서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것)과 한 경기 20득점-20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라운드 MVP를 차지했다.

오세근을 1대 1로 막을 선수는 없어 보인다.

인삼공사와 결별한 이정현은 역대 최고 보수인 9억2000만원에 전주 KCC 유니폼을 입었다.

연봉 8억2800만원, 인센티브 9200만원에 5년 계약을 맺었다.

종전 최고였던 2015~2016시즌 문태영(삼성)의 8억3000만원을 가볍게 넘었다.

리그를 대표하는 슈팅가드로 정확한 슛과 노련함, 보조 리딩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잦은 대표팀 차출로 새 팀 적응에 애를 먹었고 부상까지 겹쳐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다.

KCC 부진에 대한 책임론도 이정현에게 쏠렸다. 제 페이스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정현은 15경기에서 평균 32분6초를 뛰며 평균 13점(국내선수 5위) 2.9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초반 바닥에 있던 KCC는 3일 현재 13승5패로 서울 SK와 공동 선두에 자리하며 우승후보다운 면모를 찾았다.

이정현은 슛이 잘 들어가지 않아도 고집하지 않는다.

돌파와 투맨 게임 등으로 다른 해결책을 찾으며 동료를 살리는 능력이 뛰어나다. 상대가 수비하기 까다로운 이유다. 비싼 몸값에는 이유가 있다.

김동욱은 FA 계약 당시만 해도 '삼성이 너무 많은 보수를 준 것 아니냐'는 의문부호가 붙었다.

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고 센스가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은퇴가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까지 고양 오리온에서 뛴 그는 우리나이로 서른일곱이다.

삼성은 과감하게 보수 총액 6억3000만원(연봉 5억6700만원 · 인센티브 6300만원)에 3년 베팅을 했다.

오세근과 이정현의 덕을 본 면이 있다.

입찰제로 진행되는 현 FA 계약 방식에서 오세근, 이정현 영입을 염두에 뒀던 팀들이 김동욱으로 선회하며 몸값이 오른 것이다.

예상보다 높게 형성된 몸값에 구단들이 발을 뺐지만 삼성, 부산 KT 외에 여러 곳이 김동욱에 관심을 보였다.

기대에 부응했다.

김동욱은 16경기에서 평균 10.4점 4.6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경기당 3점슛은 2.4개. 공수에서 팀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다루기 '힘든' 리카르도 라틀리프를 반하게 한 패스가 일품이다.

김동욱과 라틀리프의 투맨 게임은 필살기가 됐다.

경기 조율에서 김태술의 부담을 덜어줘 시너지 효과도 상당하다.

어느 관계자는 "FA는 큰 돈이 오가는 비즈니스다. 코칭스태프와 프런트에게 FA 투자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인삼공사, KCC, 삼성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신인부터 앞으로 2~3년 동안 리그 판도를 흔들 만한 대어가 없고 향후 FA 선수를 영입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된 3명에게 투자한 돈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 조락현, 차이나투어 상금왕 등극

조락현(25)이 올 시즌 차이나투어 상금랭킹 1위에 오르며 유러피언투어 진출권을 손에 넣었다.

차이나투어(CPGA)는 지난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막을 내린 최종전 'KG S&H 시티 아시안 골프 챔피언십'을 끝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시즌 상금 랭킹 선두를 달린 조락현은 이 대회에서 컷 탈락하며 상금 2위인 브라이든 맥퍼슨(호주)에게 역전을 내주는 듯 했다. 그러나 맥퍼슨이 보원 샤오(중국)에게 연장 승부 끝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고, 2017시즌 차이나투어 상금왕은 조락현에게 돌아갔다.

조락현은 올 시즌 총 87만3935.77위안(약 1억4000만원)의 상금을 획득해 맥퍼슨(87만3125.41위안)을 단 810.36위안(약 13만3000원) 차로 따돌렸다.

올해부터 차이나투어 상금랭킹 1위는 한국프로골프(KPGA) 제네시스 포인트 1위와 마찬가지로 유러피언투어 시드권이 주어진다. 퀄리파잉(Q)스쿨 통과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카테고리 16'을 부여 받으면서 메이저대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고교시절 조던 스피스(미국), 재미교포 김찬과 함께 '캐논컵' 서부 지역 대표로 활약하는 등 전미 주니어랭킹 8위까지 했다. 스포츠명문인 오레곤 대학 골프팀에서 활약한 뒤 2014년 프로로 전향했다. 차이나투어를 주무대로 활약 한 조락현은 작년까지 우승이 없다가 올해 6월초 '세인트앤드류 오픈'에서 데뷔 첫 우승을 따냈다. 3주 뒤 '화이트 마운틴 완다 오픈'에서 시즌 2승째를 신고했다.

올 시즌 차이나투어에서 유일하게 2승을 차지한 조락현은 상금랭킹 1위를 질주한 끝에 유러피언투어 진출의 꿈도 이뤘다. 차이나투어에서 한국 선수가 상금왕을 차지한 것은 2012년 왕정훈(22) 이후 처음이다.

조락현은 올해 유러피언투어 '볼보차이나 오픈'에서 24위, 2부 투어인 챌린지투어 '포산 오픈'에서 6위를 차지하는 등 경쟁력을 확인했다.

/뉴시스

## '4강 신화 주역' 유상철, 전남 지휘봉 잡는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유상철 감독이 K리그로 돌아온다. 행선지는 전남 드래곤즈다.

복수의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 감독은 4일 오후 광양을 찾아 전남과 계약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유 감독과 전남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감독은 현역 시절 만능 플레이어로 명성을 떨쳤다.

1998년 프랑스 대회, 2002년 한일 대회 등 두 차례 월드컵을 포함해 A매치를 124회나 경험했다.

이력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한일월드컵이다.

당시 유 감독은 거스 히딩크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 아래 대다수 시간을 그라운드 위에서 보냈다. 폴란드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는 호쾌한 중거리 슛으로 쐐기골을 터뜨리기도 했다. 2006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변신했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말까지 대전 시티즌을 통해 프로팀 사령탑도 경험했다. 2014년부터는 울산대에서 후배들을 양성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